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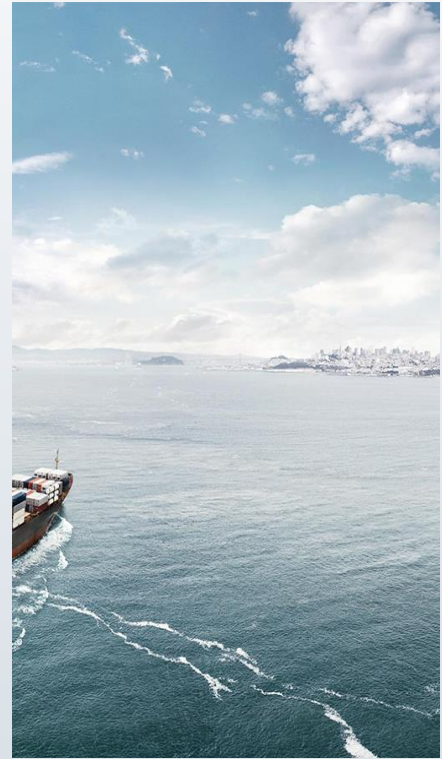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236

Updated February 19, 2019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7
- BC Sales Report	
Tankers	11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5
Key Indicators	18
STL News & Information	20
Contact Information	23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ISSUE & TREND

1. 해운 대체복무 축소에 해운업계 반발

정부가 병역 자원 부족을 이유로 해운업계 대체복무제도인 승선근무예비역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축소되면 해상 인적자원 부족으로 이어져 국가 안보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나 국가비상시에 생필품·군수물자 수송을 맡기기 위해 3 년 동안 해운·수산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이들은 해기사(항해사·기관사) 면허를 가지고 전시나 국가비상시에 육·해·공군에 이은 제 4 군(軍)의 역할을 한다.

국방부는 병역자원감소 및 복무기간단축에 따른 현역자원 확보,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현역병 이외 전환·대체복무제에 대한 폐지·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 역시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과 같은 복무제로 보고 폐지·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해운업계가 반대에 나선 것이다.

■ 승선근무예비역 폐지·축소되면 해기사 인력 이탈 우려

해운업계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가 되려는 예비 인력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 월 1 일 기준으로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인원은 3,165 명이다. 매년 1,000 명씩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등 4 개 해양계 학교에서 뽑는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사라질 경우 해기사 인력이 군대도 가고 배도 타야하는 상황이 될 경우 누가 해기사를 하겠냐는 반응이다.

지난 18 일 한국선주협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에서 김득봉 목포해양대 교수는 "젊은 해기사 감소는 해운사업 인적 부족과 함께 국가경제 및 안보 위협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승선근무예비역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국가존립을 위한 근간 제도라고 주장했다. 2011 년 쓰나미가 덮쳤을 때 일본 국토교통성은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 km 이내를 선박통항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외 지역은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I . ISSUE & TREND

하지만 미국 해사청을 비롯한 독일·덴마크 등은 일본 입항 자제나 우회 항로를 권고했고, 일본 동북부 항만에 기항한 선박 수가 급감했다. 결국 일본은 자국 선원과 자국 선박을 동원해 물류대란을 막았다.

김 교수는 "머스크라인 등 외국 선박이 일본 동북부 항만을 회피한 이유는 방사능 피복 때문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일본 사례를 볼 때 전쟁이나 재난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국내 입항 선박의 75%를 차지하는 외국적 상선들이 입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 육·해·공군도 대체할 수 없는 전문인력...국방부 "올해 안에 대체복무 감축 계획 발표"

해운업계에서는 전시나 국가비상시 승선근무예비역 임무를 육·해·공군 등이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 화물선으로 물자를 수송하려면 항해뿐 아니라 화물 선적·운항·양하 과정에서 화물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리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기 면허를 가진 항해사, 기관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급격한 규모축소나 폐지 시 해기사 양성체제 붕괴로 해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해 해운산업 전반에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미국은 해군과 상선대를 국가 해양력 양대 축으로 보고 국가필수선대를 갖춰 전시에 국가안보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상선대학 학생은 미 해운예비사관후보생을 의무적으로 지원해 최소 6년 동안 예비역 장교로 복무한다. 중국도 민간선박을 군수물자와 인력 수송에 활용하는 국방교통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상비 병력을 차질 없이 충원하려면 전환복무 폐지 및 대체복무 감축 등 현역병 확보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많은 국민들이 대체복무를 특혜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체 복무 감축 및 제도개선이 헌법상 국민개병제 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를 동일 선상에서 검토하고 국가 정책적 필요성과 병역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되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 감축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민인식조사 등을 실시하고 연내 대체복무 감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 . ISSUE & TREND

2. 부산항 기항 정기 '컨' 노선, 한진해운 사태 이전으로 회복

올해 들어 부산항에 기항하는 정기 국제 컨테이너 노선이 한진해운 사태 이전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올 2 월 기준 부산항에 기항하는 정기 국제 컨테이너 노선은 주당 268 개로 지난해보다 5 개가 증가했다고 19 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분석기관인 알파라이너의 데이터를 활용·분석한 것으로, 기존과 달리 선사 간 공동운항 및 선복임차 등을 동일노선으로 통합·산정하는 글로벌 기준을 적용했다고 BPA 는 전했다. BPA 에 따르면 부산항 기항 선사들의 주당 노선 수는 2015 년 257 개에서 2016 년 268 개, 2017 년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253 개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63 개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는 268 개로 한진해운 사태 이전으로 회복했다.

주변 항만과 비교해보면 싱가포르 항만이 333 개, 중국 상해 256 개, 중국 선전 229 개, 홍콩 204 개, 중국 닝보 170 개 등으로, 부산항이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은 정기노선이 있어 글로벌 2 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외국적 선사의 노선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국적선사는 129 개로 5 개, 외국적 선사의 노선은 127 개로 3 개가 증가했으며, 국적·외국적 선사가 공동운영하는 노선은 12 개로 3 개가 줄었다. 지역별 노선을 보면 일본이 73 개로 가장 많고 동남아 50 개, 중국 46 개, 북미 41 개, 유럽 16 개, 남미 12 개, 러시아 8 개, 인도 7 개, 대양주 7 개, 중동 6 개, 아프리카 2 개 등의 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본 노선은 6 개, 중국 노선은 4 개, 남미 노선은 2 개, 대양주, 중동, 인도 노선은 각 1 개씩 늘어난 반면, 동남아 지역과 북미지역 노선은 선사간 서비스 통합 및 조정 등으로 각 8 개로 2 개씩 줄었다.

특히 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지역 노선이 부산항 전체 서비스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해운동맹의 서비스가 집중되는 동서항로와 연근해 항로의 연계성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남미, 중동, 대양주 지역 등을 포함하는 남북항로의 노선도 지난해보다 5 개가 늘어난 34 개로 남북항로상 부산항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해운동맹 재편과 초대형선 투입 확대 등으로 인한 선사간 서비스 통합·조정에도 불구하고 부산항 기항 정기노선이 지속 증가하는 것은 부산항 연계성이 우수하고 환적 경쟁력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선사별 부산항 기항 정기노선을 모니터링해 부산항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ی겠다"고 밝혔다.

I . ISSUE & TREND

3. 한진중, 필리핀 현지은행에 수빅조선소 넘긴다

한진중공업이 자본잠식의 원인인 필리핀 수빅조선소와의 관계를 정리한다. 최근 채무조정 합의를 마친 필리핀 현지은행에 수빅조선소를 넘기기로 한 것이다. 한진중공업은 10 년만에 수빅조선소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한진중공업 경영권에 미칠 필리핀 현지은행들의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한진중공업의 주식 규모가 줄어드는 탓이다.

지난 18 일 채권단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현지 은행들과의 채무조정 협상에서 필리핀 현지법인이자 자회사인 수빅조선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무조정 합의를 통해 필리핀 현지은행들에게 한진중공업 본사 주식과 함께 수빅조선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기로 했다"며 "수빅조선소의 회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진중공업과 수빅조선소 간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지난 14 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던 현지은행들과의 채무조정 협상을 마무리했다. 한진중공업은 협상 결과와 관련, 한진중공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해소하는 대신 현지은행들이 출자전환을 통해 한진중공업 주식 일부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밝혔을 뿐 수빅조선소 처리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법원에 수빅조선소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회생계획안 승인을 받으면 수빅조선소는 완전히 한진중공업 손을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에 대한 청산절차를 밟은 후 필리핀 현지은행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를 넘기는 대신 출자전환을 통해 필리핀 현지은행들이 취득할 주식 규모를 최대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출자전환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한진중공업 주식을 취득하는 필리핀 현지은행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진중공업은 지난달 8 일 필리핀 올롱가포 법원에 수빅조선소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같은달 14 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인가를 받았다. 이후 산업은행과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 회생을 위해 필리핀 현지은행들과 4 억 1,000 만달러 규모의 채무조정 협상을 해왔다.

I . ISSUE & TREND

이번 채무조정 합의로 한진중공업은 10 년만에 수빅조선소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 수빅조선소는 2 조원을 투자해 2009 년 완공됐다. 완공 당시 필리핀의 값싼 노동력을 앞세우면서 '알짜 사업'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이 닥치면서 2016 년 1,820 억원, 2017 년 2,335 억원, 지난해 3 분기 누적 601 억원 등의 적자를 냈다. 이 때문에 모회사인 한진중공업의 재무건전성까지 악화되는 등 자본잠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채권단은 이번 채무조정 협상으로 수빅조선소 리스크가 절연되면서 한진중공업 경영정상화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조만간 채권단회의를 소집하고 출자전환 등 한진중공업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필리핀 현지은행과 채무조정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출자전환 등 한진중공업 경영정상화 논의를 진행할 시점"이라며 "채권단 내에서 아직까지 (출자전환 등과 관련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현지은행에 넘어간 수빅조선소는 향후 필리핀 정부에서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수빅조선소 매각작업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탓이다. 델핀 로렌zana 필리핀 국방장관은 최근 상원에서 "수빅조선소를 인수하면 필리핀도 대형선박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를 가질 수 있다"며 "수빅조선소를 필리핀 해군 소속으로 둘 것이며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이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필리핀 정부가 수빅조선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 필리핀 현지은행들이 수빅조선소 매각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 '빅이벤트' 줄줄이 대기...향후 6 주가 세계경제 '골든타임'

앞으로 3 월 말까지 남은 6 주일이 세계 경제의 운명을 결정할 '골든 타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과 미국의 자동차 관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까지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굵직한 사안들이 모두 3 월 내로 결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뜰이나 중국의 경제 둔화와 유럽 경제 악화로 인해 글로벌 경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세 가지 사안의 결과에 따라 세계 경제의 운명이 갈릴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I . ISSUE & TREND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에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무역전쟁의 '90일 휴전'이 끝난다. 3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3월 2일 오전 0시 1분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중 양국이 현재 베이징에서 벌이고 있는 장관급 무역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측이 파국을 막기 위해 현상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 입장에선 미국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수입 자동차 관세 문제도 결정을 앞두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년 5월부터 수입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해왔는데 그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AFP 통신은 15일 미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상무부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유럽과 일본,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만약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과 교역하는 국가들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 영국은 3월 29일 이후로 EU가 제3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받을 수 없어 사전에 영국과 대체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들은 통상 시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영국은 '노 딜'에 대비해 기존에 EU가 69개국과 맺은 무역협정을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대체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7개국에 그치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기존 무역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 받았지만,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따라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영국 내에서도 브렉시트를 연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나 '노 딜' 브렉시트도 불사해야 한다는 브렉시트 강경론자들 때문에 연기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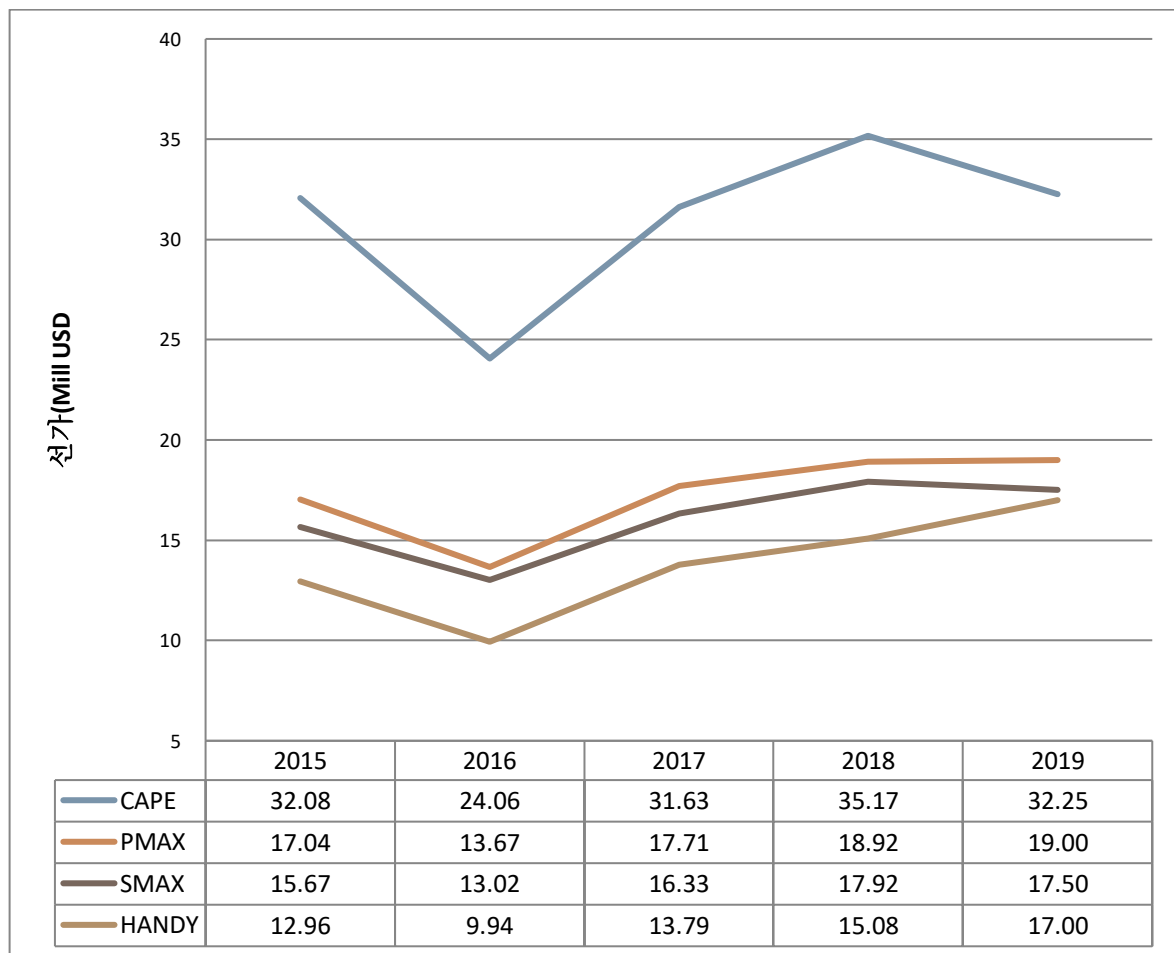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5	2016	2017	2018	2019
Capesize 180K	32.08	24.06	31.63	35.17	32.25
	-31.45%	-24.99%	31.43%	11.20%	-8.30%
Panamax 76K	17.04	13.67	17.71	18.92	19.00
	-30.16%	-19.80%	29.57%	6.82%	0.42%
Supramax 58K	15.67	13.02	16.33	17.92	17.50
	-36.04%	-16.91%	25.44%	9.69%	-2.34%
Handysize 37K	12.96	9.94	13.79	15.08	17.00
	-33.20%	-23.32%	38.78%	9.37%	12.73%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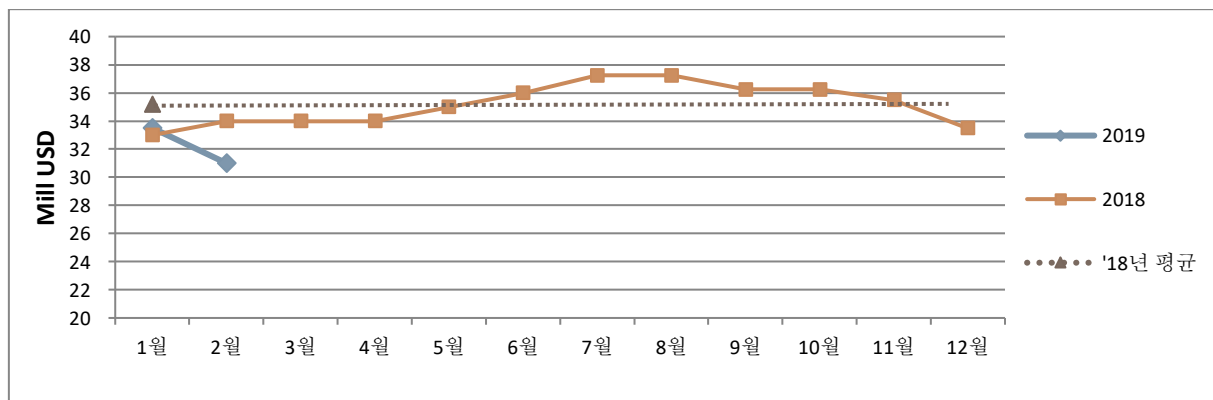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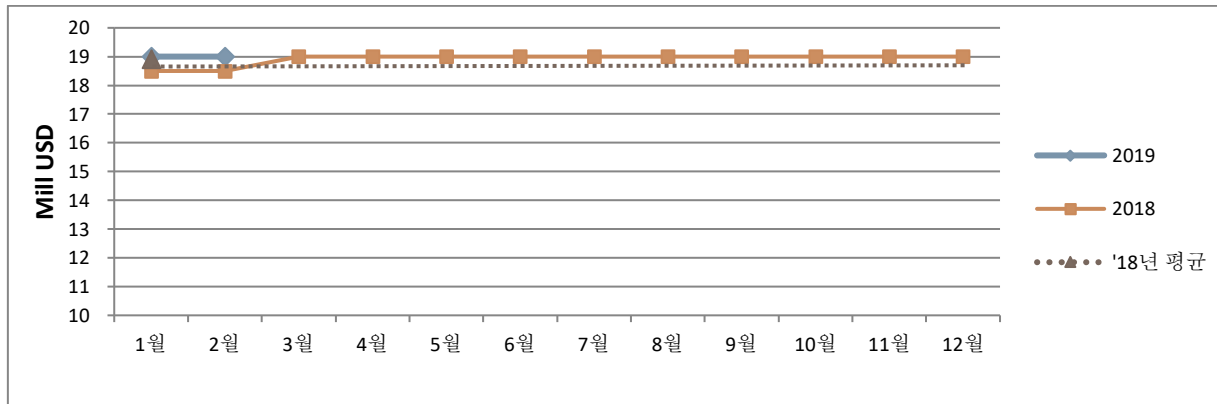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2019	CAPE 180K	선가	33.50	31.00					32.25
		전월대비	0.0%	-7.5%					-
		전년대비	1.5%	-8.8%					-8.3%
	PMAK 76k	선가	19.00	19.00					19.00
		전월대비	0.0%	0.0%					-
		전년대비	2.7%	2.7%					0.4%
	SMAK 58k	선가	18.00	17.00					17.50
		전월대비	0.0%	-5.6%					-
		전년대비	2.9%	-2.9%					-2.3%
	HANDY 37k	선가	17.00	17.00					17.00
		전월대비	13.3%	0.0%					-
		전년대비	21.4%	21.4%					12.7%
2018	CAPE		24.50	25.00	30.00	33.50	33.50	33.50	34.33
	PMAK		14.50	15.50	17.50	18.50	18.50	18.00	17.71
	SMAK		14.50	15.00	16.00	17.00	17.00	16.50	16.33
	HANDY		13.00	13.50	13.50	14.00	14.00	14.00	13.79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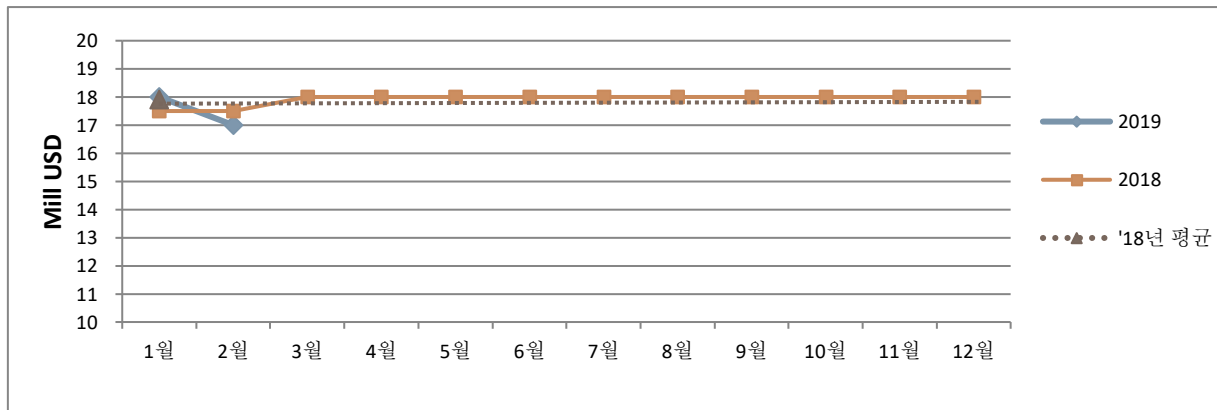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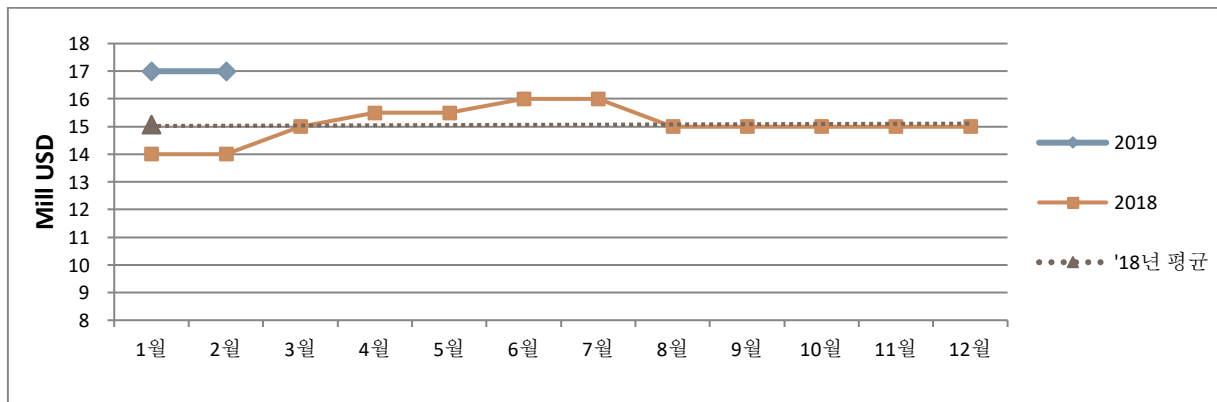
□ Pan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DENSA COBRA	180,491	2011	KOREA	B&W		27.5	Undisclosed buyer
BC	TENDER SALUTE	95,695	2011	JAPAN	B&W		17	Belgium buyer (Cobelfret)
BC	OSMARINE	76,596	2006	JAPAN	B&W		9.5	Greek buyer (Eurobulk)
BC	MEDI BALTIMORE	76,469	2005	JAPAN	B&W		8.4	F.Eastern buyer Including 2 Yrs TC Back
BC	MEDI CAGLIARI	75,772	2004	JAPAN	B&W		7.9	Chinese buyer
BC	AQUAPROSPER	61,208	2015	JAPAN	B&W	C 4x30.7t	25	Undisclosed buyer
BC	ALSTER BAY	55,430	2008	JAPAN	B&W	C 4x30.5t	12	Greek buyer (Diligent Holdings)
BC	SAUBAAGYA 5	53,505	2002	JAPAN	B&W	C 4x30.5t	7.3	Chinese buyer
BC	PARADISE BAY	46,232	2003	JAPAN	B&W	C 4x30t	9.8	Canadian buyer (CSL Group) - For conver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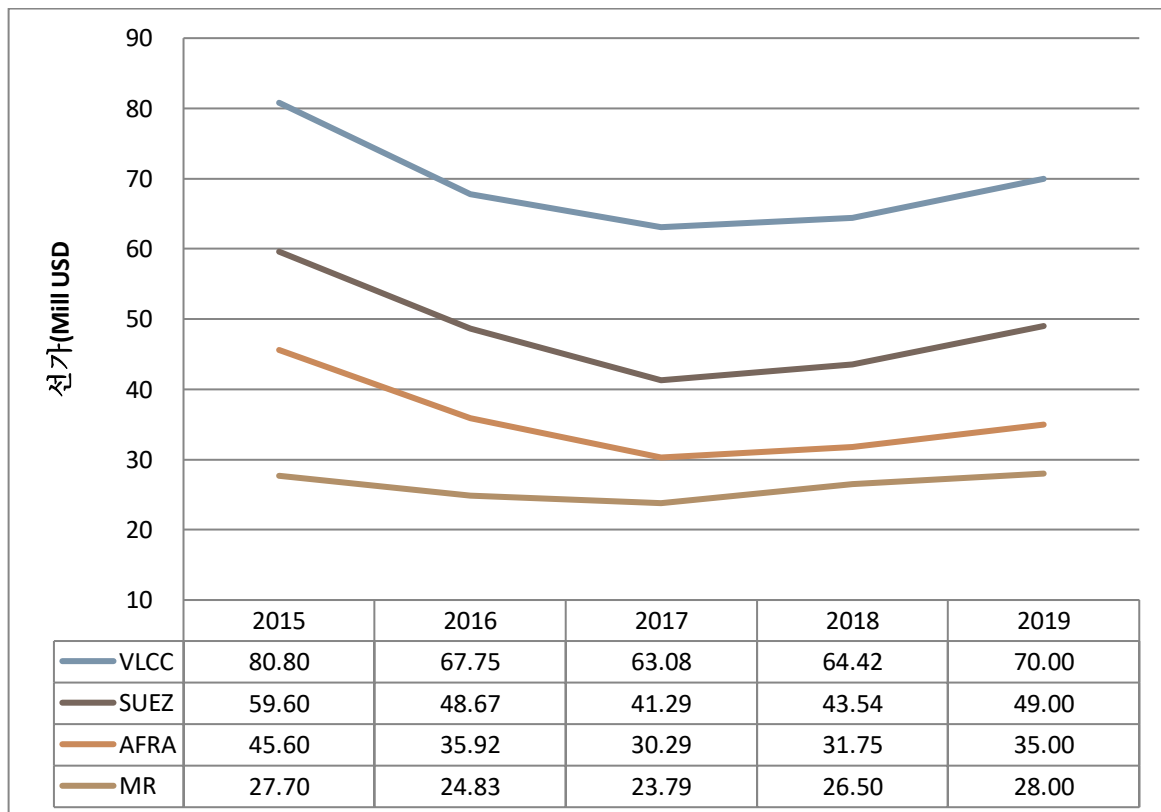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VLCC 310K	80.80	67.75	63.08	64.42	70.00
	9.04%	-16.15%	-6.89%	2.11%	8.66%
Suezmax 160K	59.60	48.67	41.29	43.54	49.00
	17.32%	-18.34%	-15.15%	5.45%	12.54%
Aframax 105K	45.60	35.92	30.29	31.75	35.00
	17.83%	-21.24%	-15.66%	4.81%	10.24%
MR 51K	27.70	24.83	23.79	26.50	28.00
	2.97%	-10.35%	-4.19%	11.38%	5.66%
Chemical Tanker IMO II 13K	12.60	13.92	12.42	11.77	11.13
	-3.08%	10.45%	-10.78%	-5.20%	-5.48%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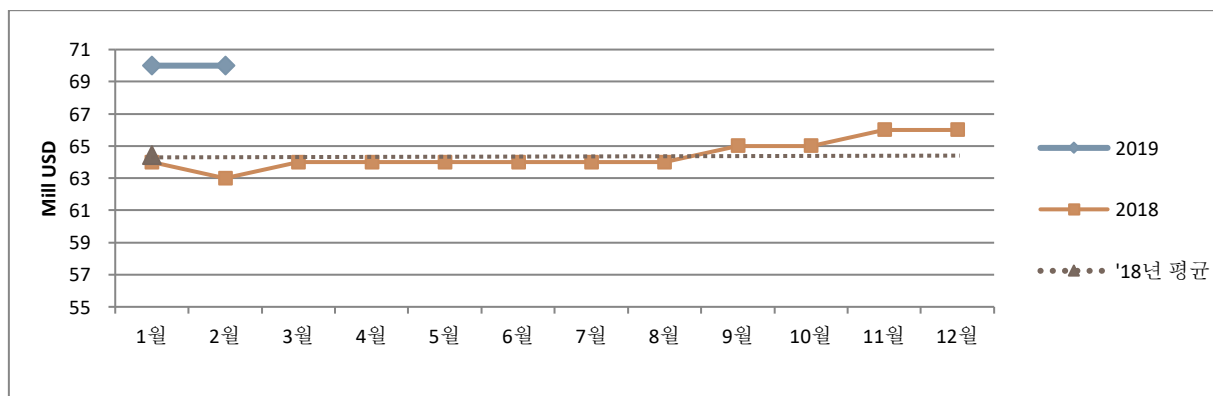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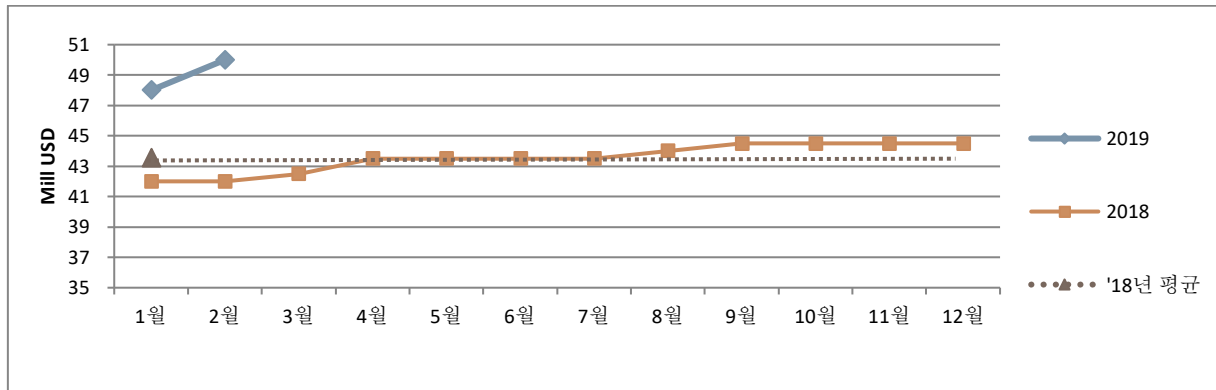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2018	VLCC 310K	선가	70.00	70.00					70.00
		전월대비	6.1%	0.0%					-
		전년대비	9.4%	11.1%					8.7%
	SUEZ 160K	선가	48.00	50.00					49.00
		전월대비	7.9%	4.2%					-
		전년대비	14.3%	19.0%					12.5%
	AFRA 105K	선가	35.00	35.00					35.00
		전월대비	6.1%	0.0%					-
		전년대비	9.4%	16.7%					10.2%
	MR 51K	선가	28.00	28.00					28.00
		전월대비	1.8%	0.0%					-
		전년대비	12.0%	12.0%					5.7%
2017	CHEM IMO2 13K	선가	11.00	11.25					11.13
		전월대비	0.0%	2.3%					-
		전년대비	-15.4%	-10.0%					-5.5%
	VLCC		64.00	63.00	64.00	64.00	64.00	64.00	63.83
	SUEZ		42.00	42.00	42.50	43.50	43.50	43.50	42.83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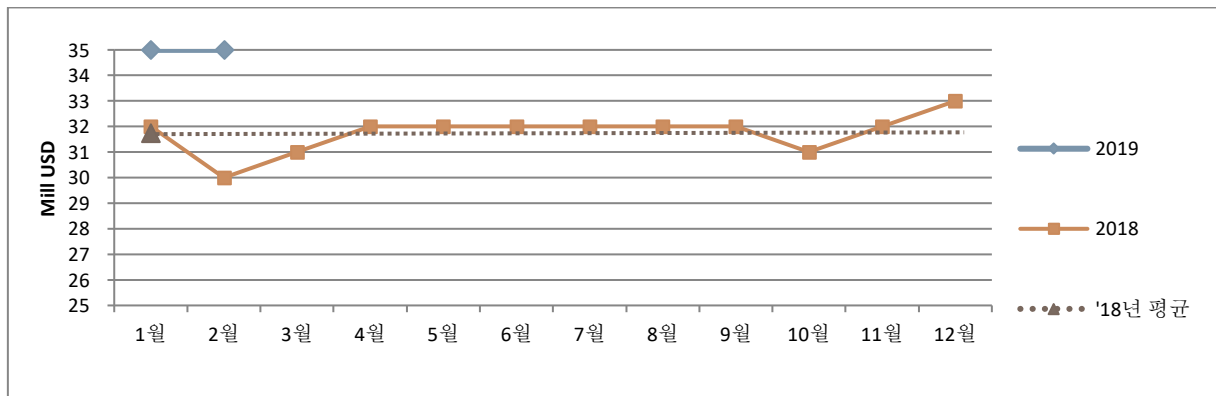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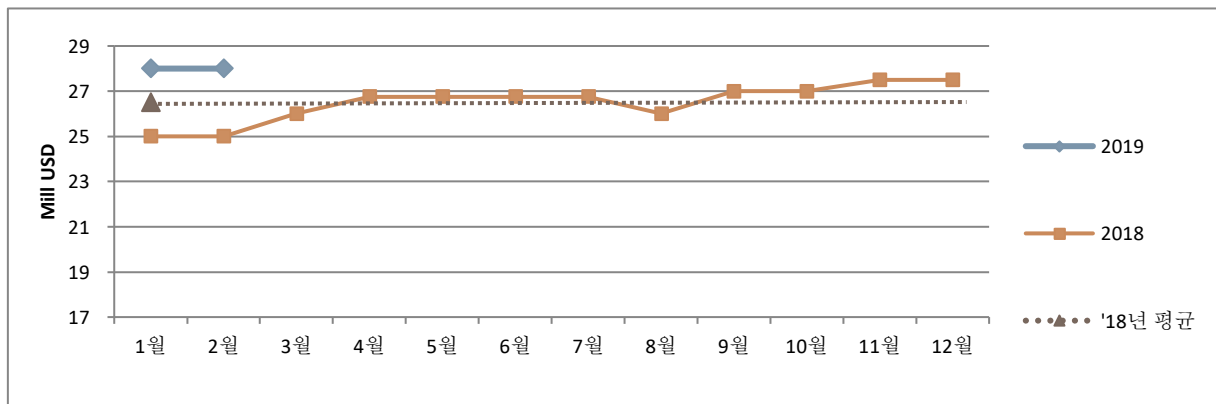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SN CLAUDIA	109,010	2009	CHINA	B&W		-	Monaco buyer (International Andromeda)
TANKER	TH SYMPHONY	106,246	2008	JAPAN	B&W		-	German buyer (Nord LB)
TANKER	QUEEN EXPRESS	45,965	2009	JAPAN	B&W		16.2	Greek buyer (Cape Shipping SA)
TANKER	AXELOTL	37,329	2004	KOREA	B&W		7.3	Indonesian buyer
OIL/ CHEM	ARGENT COSMOS (stst)	33,609	2009	JAPAN	MITSU	2&3	17	Undisclosed buyer
OIL/ CHEM	SOUND OF SEA (stst)	4,621	1991	ITALY	WART	2	-	Turkish buyer (Karadeniz)

2) CONTAINER, REEFER,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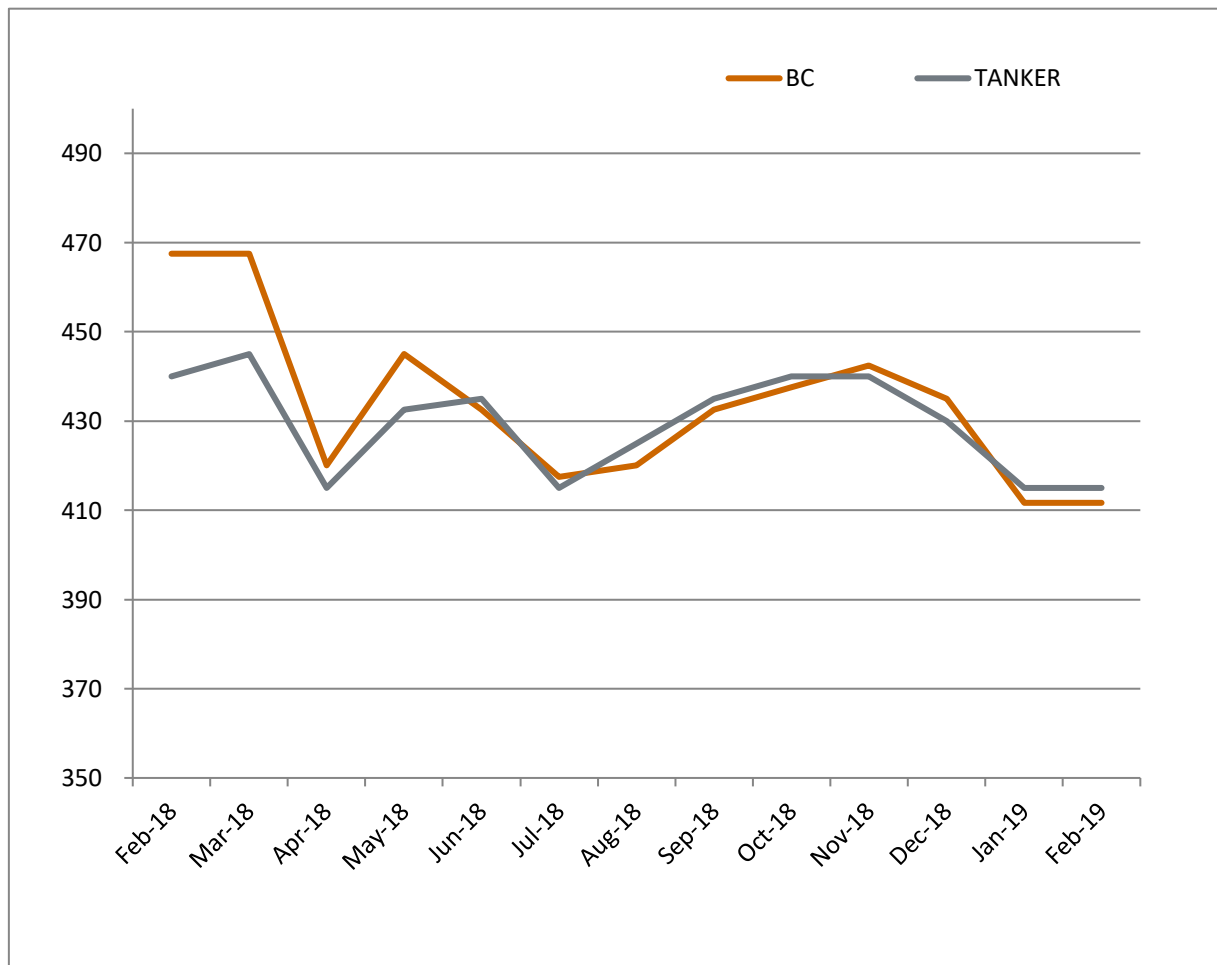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J. PIONEER	5,803	1994	KOREA	B&W	385	TEU	1.1	Undisclosed buyer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7 평균		2018 평균		2019 평균		2018 년 2 월	2019 년 2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365.21	37.5%	432.92	18.5%	415.00	-4.1%	440.00	415.00	0.0%	-5.7%
BC	370.83	38.5%	440.63	18.8%	411.67	-6.6%	467.50	411.67	0.0%	-11.9%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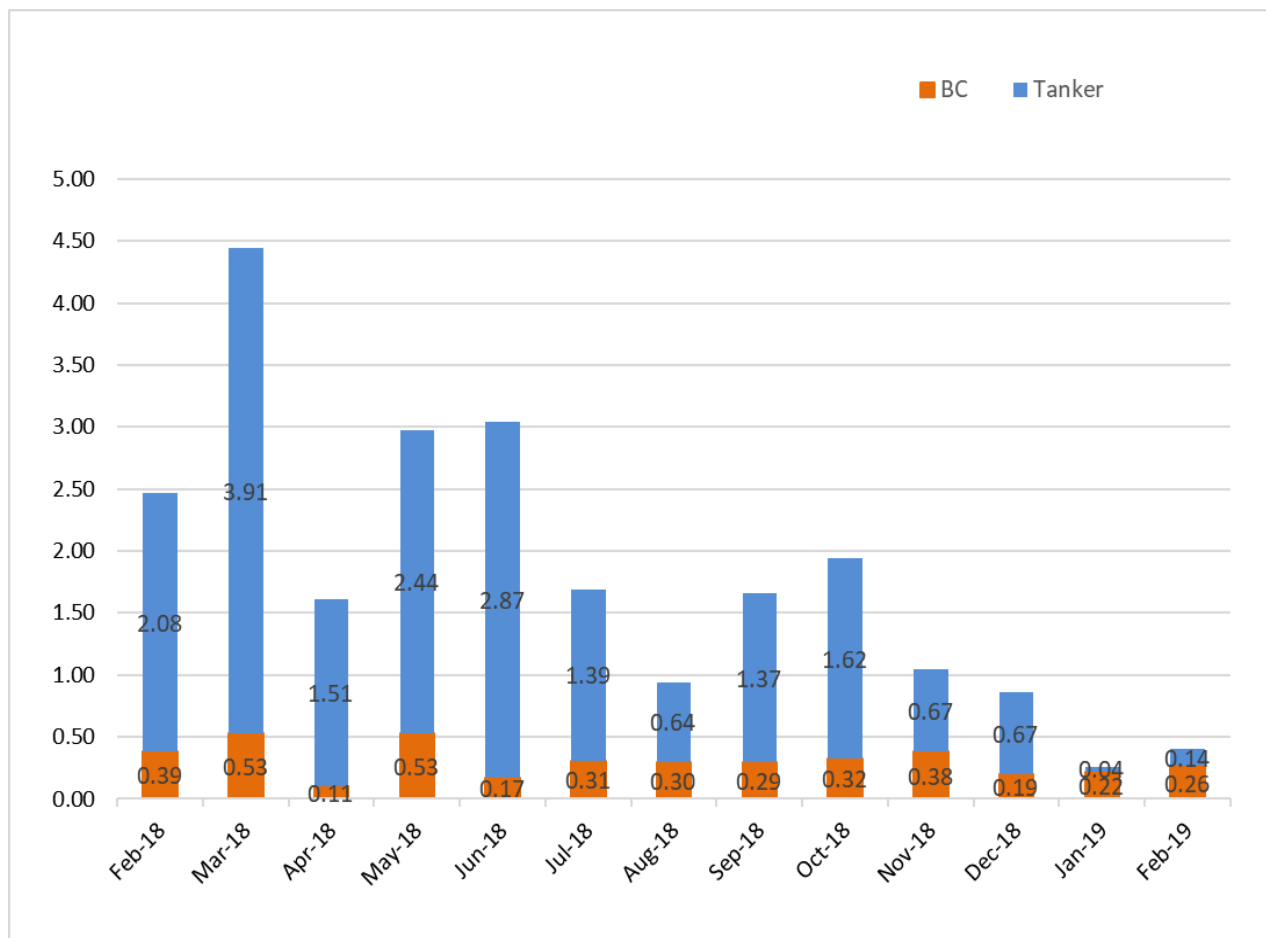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8 년		2019 년 누적				2018 년 2 월		2019 년 2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0.86	195	0.19	0.9%	7	3.6%	2.08	17	0.14	-93.2%	3	-82.4%
BC	4.20	112	0.48	11.4%	8	7.1%	0.39	8	0.26	-31.7%	3	-62.5%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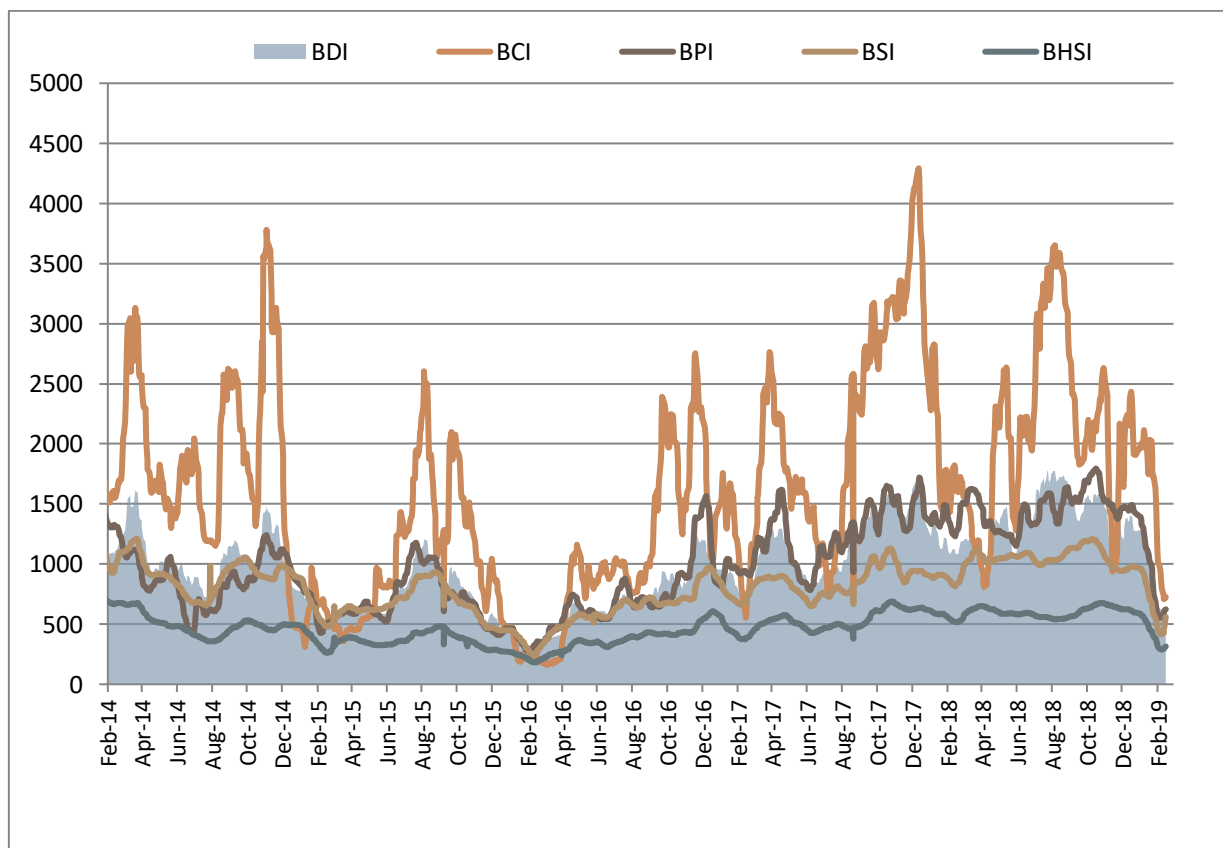
V -1. Demolition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GC	ELITE GRACE	11,352	2,445	1985	JAPAN	B&W	407	BANGLADESH
CEMENT	LEVANT ORIENT	14,650	5,690	1962	JAPAN	SULZ	430	BANGLADESH
CONT	ZIM BARCELONA	55,586	19,526	2002	JAPAN	B&W	446	AS IS Singapore
CONT	THOMAS MAERSK	25,431	7,974	1994	JAPAN	B&W	-	INDIA
RORO	BERIL	2,431	2,753	1977	JAPAN	PIELS	400	BANGLADESH
RO-PAX	KOPERNIK	3,034	6,800	1977	NORWAY	MAN	275	AS IS Poland
TANKER	MOURAD DIDOUCHE	83,228	11,410	1980	FRANCE	ETC	-	BANGLADESH
TANKER	GOLDIE	45,425	9,913	1992	JAPAN	B&W	445	BANGLADESH
TANKER	GOLDEN STAR	45,425	9,920	1992	JAPAN	B&W	-	BANGLADESH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19-02-15	2019-02-08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639	601	▲38.00	1774	290
BCI	727	792	▼65.00	4293	161
BPI	624	574	▲50.00	1796	282
BSI	560	415	▲145.00	1209	243
BHSI	315	290	▲25.00	690	183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417.00	▲13.00	382.50	▲18.50	405.00	▲25.00
IFO180	446.50	▲9.00	423.50	▲9.50	468.50	▲17.50
MGO	577.00	▲20.50	533.00	▲19.50	605.50	▲37.00
LSMGO	578.00	▲31.00	546.00	▲28.50	-	-

❖기준일 : 2 월 15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19-02-15	2019-02-08	CHANGE
미국 달러	1125.00	1123.40	▲1.60
일본 엔(100)	1018.05	1023.09	▼-5.04
유로	1270.97	1274.05	▼-3.08
중국 위안	166.06	165.75	▲0.31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여행정보 by STL G Tour] – 가성비 갑! 착한 해외여행지 BEST 5

“당신의 통장을 지켜드릴게요, 가성비 높은 착한 여행지 BEST5”

물가가 저렴하면서도 알찬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찾고 있나요? 지금 가성비 높은 착한 여행지 BEST5 를 소개합니다!



■ 베트남

지금 핫한 여행지는 단연 베트남! 특히 짬내여행도 두 번이나 다녀올 만큼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착한 여행지예요. 로컬 식당을 이용하면 한 끼 2~5 천원이면 충분하고, 커피 또한 한 잔에 2~3 천원이면 마실 수 있어 식비 부담이 적죠. 호스텔이나 캡슐 호텔은 1 박당 1 만원 이하이며, 5성급 호텔도 시즌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0 만원 내외로 숙박이 가능합니다.

도시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호치민이나 하노이를, 휴양이 목적이라면 다낭, 나트랑, 푸꾸옥 등을 추천합니다. 만약 여러 도시를 이동할 예정이라면 슬리핑 버스도 추천해요. 2~3 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 가격 부담이 적어 배낭여행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VI. STL NEWS & INFORMATION

■ 인도네시아 발리

휴양지라 물가가 비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유명 셀럽들이 소개하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풀빌라 등은 엄청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수준으로도 충분히 럭셔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망 좋은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요리 2~3 개와 맥주까지 주문해도 평균 2 만원 내외이며, 로컬 식당은 끼니당 3 천원 정도면 충분해요.

숙박은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하게 선택 가능한데, 현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저렴하면서도 조용해 휴식을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특히 더운 날씨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영장을 갖춘 집들이 많은데 저렴하게는 1 박 10 만원부터 숙박이 가능하니 여럿이 함께 가는 여행을 떠나보세요!

■ 태국 방콕

전 세계에서 호텔이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인 태국 방콕. 숙박요금이 저렴해 호캉스를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가격을 들으면 놀랄 정도로 훌륭한 룸 컨디션은 물론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른 도시에서는 엄두도 못 낼 럭셔리한 체인 호텔들도 합리적인 가격대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특가 항공권도 어렵게 구할 수 있으니 숙박비에 대한 부담도 한층 덜 수 있죠!

동남아답게 로컬 식당을 이용하면 커피 한 잔 값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한 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쌀국수나 팟타이 말고 진짜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에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길거리 발 마사지는 1 시간 기준 200 바트(약 7 천원) 이면 받을 수 있고 전문 샵들도 2 시간 코스의 전신 마사지를 10 만원 안 되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방콕에서 1 일 1 마사지는 사치가 아닌 당연히 즐겨야 하는 축복!

■ 일본 큐슈

립스틱 3 개 가격으로 항공권을 살 수 있다? 큐슈라면 가능합니다. 후쿠오카, 사가, 가고시마 등 큐슈 지역은 10 만원대 특가 항공권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비즈니스 호텔이 많아 전체 여행 경비를 아낄 수 있어요.

일본은 돈키호테로 해당도시의 물가를 파악할 수 있는데, 확실히 도쿄나 오사카 등에 비해 큐슈 지역이 같은 돈키호테라 하더라도 제품가격이 저렴합니다. 캐리어 가득 쇼핑리스트를 채워오기에 딱이죠! 게다가 일본에서 손꼽히는 온천여행지로 료칸의 가격대도 다양해 부담없이 즐기기 좋아요.

VI. STL NEWS & INFORMATION

■ 포르투갈

물가 비싸기로 소문난 서유럽이지만 포르투갈은 예외입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다른 서유럽 국가에 비해 식비, 교통비 등 약 20%가 저렴해요. 사실 도시가 작아서 시내에서는 거의 교통비가 들지 않는 것도 한몫 합니다. 레스토랑의 점심 코스 요리는 2 만원 내외로 맛볼 수 있으며 에그타르트는 약 1 천원으로 커피까지 곁들여도 3 천원이 안 됩니다. 포르투갈에서 꼭 마셔야 하는 포트와인은 현지에서 1 만원정도면 우리나라에서 10 만원 가까이 받는 고급 와인이라는 사실! 마트에서 간단하게 곁들일 안주를 구입해 동 루이스 다리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으면 고급 바 부럽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서유럽의 높은 물가에 지쳤다면 포르투갈에서 잠시 쉬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가성비비갑! 착한 해외여행지 BEST5 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당장 떠나고 싶지 않나요? 2019 년에는 가성비비갑! 감성비갑! 행복한 여행 떠나자구요!

[출처: 인터파크 투어, 떠나볼까 해외여행 시리즈 – 2019.01.25]

VII. CONTACT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

(Personal)

Leo J.M. Jung (정재문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9

Mob. 010-3273-4008

snp@stlkorea.com

leo@stlkorea.com (Personal)

| RESEARCH

Jiwon Song (송지원 사원)

Tel. 070-7771-6417

Mob. 010-4042-9803

snp@stlkorea.com

jiwon@stlkorea.com

(Personal)

Sally Kim (김윤희 사원)

Tel. 070-7771-6403

Mob. 010-3161-5964

snp@stlkorea.com

sally@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 FERROALLOY LOGISTICS

| WAREHOUSE MANAGEMENT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